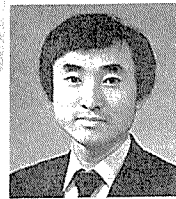


# 올바른 교육풍토가 아쉽다



이 정 식

## 1. 하늘나라에 주소를 옮긴 아이들

요즘 청소년 문제를 다룬 영화, 연극들이 많이 상영되고 있다. 그 내용의 주류는 학교 교육제도에 억압되어 인간이 인간이 될 포기해야 되는 한계상황에서 자살로 결말되어 지는 것들이 많다.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다. 한해에 100여명 이상이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풍토를 견디다 못해 하늘나라에 주소를 옮겼건만 올해도 역시 다람쥐 쳇바퀴는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또한 얼마나 많겠는가? 청소년 흉악범죄, 약물남용, 기성세대의 퇴폐문화 모방...

동네 꼬마 녀석들이, 장마와 폭우로 견힌 높은 가을 하늘을 떼지어 나는 고추잠자리를 잡고 있다. 그 옆에 있던 몇몇 고교생은 그 잠자리를 빼앗아 라이타로 태우며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안타까워만 하고 있을 때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기에 새로운 물결을 기대하며 이글을 시작한다.

## 2.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막상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이제  
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명문대학이 왜그  
렇게 내 가슴을 짓눌렀던지, 왜 나는 아버  
님께 내 점수에 맞추어 평범한 대학에 간  
다고 단호히 말씀드리지 못했는지. 지금  
은 나 자신이 밋고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차  
마 저는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  
었습니다.” (89. 10. 23. 자살한 서울 M고  
3년 김모군 유서)

우리의 중·고생은 콩나물 교실에서 개  
인의 잠재능력이나 소질과 관계없이, 불과  
2할 남짓한 대학 합격자를 양성하기 위해  
8할에 가까운 고교생이 따라갈 수 없는 수  
업을 받고 있다.

한날 입시에 출제될 만한 문제의 정답을  
찾고 단편된 지식을 외는 훈련을 동이 터  
서 다시 터올 때까지 하루의 2/3를 딱딱한

의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문중의  
고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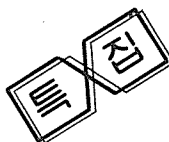
교육이 총체적 시각에서 파악되어야 하  
듯이 이것은 몇년 사이에 이루어진 분위  
가 아닌 것이다. 그 뿌리에는 50년대 전후  
의 비참하고 암울했던 시대상황에서 성장  
한 기성세대(학부모, 교사포함)들이 70~  
8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가졌던 부  
조리한 생활철학으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  
에서부터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남을 누  
르고서라도 내가 딛고서야 한다는 이기주  
의, 적당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청소년들  
은 가치관 혼란과 그릇된 사회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할 때 다양성과 개성 그리고 조화의  
능력을 기초로 한 현대 민주사회의 질서와  
존재를 위협하게 된다.

학생들이 아파하고  
있다.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풍토를  
견디다 못해...





실업교육의  
보편화를 위해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 3. 전인교육 활동 부재

친구들과 어울리며 인간관계를 배우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고 삶을 풍부하게 하는 좋은 책을 통해 꿈을 가꾸어야 하는데 우리의 교육현실에서는 정서교육, 덕성교육, 직업교육이 발붙일 데가 없다.

정치란, 넓은 의미로 볼 때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생기는 의견의 대립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현실은 어떤가? 학생회활동, 특별활동, 취미활동, 학급활동... 그 어떤 것도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미래의 동량을 키운다,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할 것인가?

8월에 가까운 학생들은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채 열등생 낙오자란 꼬리표를 달고 패배감만 간직한 채 거리로 나와 방황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듯 질식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정체감을 확립할 기회나 공간을 전혀 터득하지 못해 청소년은 자살을 택하지 않을 경우 강간, 폭력, 음주, 흡연, 가출 등 각종 비행에 빠질 확률이 그 만큼 높아진다.

### 4.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

진학, 취업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좌절시키는 사회제도적 측면,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경직된 교육제도, 심리적·도덕적으로 규범을 잃고 있는 가정 등 사회전반의 갈등요소와 부조리가 고리를 서로 맺고 있다.

“우리 모두  
자녀에 대한 일순간의  
욕심에서 벗어나  
자녀들의 능력과 소질에  
합당한 진로를 찾아주는  
정제된 교육의식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 썩어진 상처는 약 처방으로는 그 정도가 지났기에 과감하게 아픔이 있을지언정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할 때다. 그 방법을 조심스레 제시해 본다.

첫째, 대입제도 개선.

대학의 문을 늘려 수요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데 실업교육에 중점을 둔 2년제 전문대학의 문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런데 이 실업교육을 보편화 하자면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확신한 일에 내가 거하는 자세.

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해결되겠다는 제도만능주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소극적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가나안 농군학교 창설자 김용기 장로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그가 큰 사업

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확신한 일에 전 일생을 바쳤기 때문이다. 우리들(학부모, 교사)도 자녀에 대한 일순간의 욕심에서 벗어나 자녀들의 능력과 소질에 합당한 진로를 찾아주는 정제된 교육의식의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권위주의 청산

민주주의가 여론을 존중하여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듯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과 고민을 터놓고 함께 아파할 때 인간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겠다. 물론 조금씩 권위주의가 청산되는 부문도 없진 않아 ‘학교장 재량’이란 꼬리표를 흔하게 볼 수 있으나 예전의 타성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부지방을 강타하던 지나간 폭우가 지나가고 난 도봉산자락은 더욱더 창문을 열어젖히게 하고, 싸늘하지만 따뜻한 눈물을 짓게 만드는 바람이 아이들의 얼굴을 변화시킨다. 수업을 접어두고 우리는 달려가고 싶다.

“저희들은 나중에 아무 필요도 없는 이차방정식의 X를 구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의 사랑을 잃었습니다... 저희들은 새장속에 갇혀있는 새가 아닙니다. 주인이 올라고 해서 울고 주는 먹이만 받아 먹는 그런 새가 아니란 말입니다.”(\*89. 11. 6 자살한 오산 N중학 3년 한모양 유서)

〈필자=의정부 경민여중 교사〉